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생물의 죽음과 절멸

지난달 나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폐렴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지 며칠 안 돼 일어난 일이다.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다는 전화를 받았고 몇 분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다. 97세의 연세인지라 친인척 모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슬픔이 덜하진 않았다. 우리는 슬퍼할 새 없이 곧바로 장례식장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 시내 장례식장이 꽉 찬 상태였다. 화장터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다행히도 시 외곽의 장례식장을 겨우 구해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

동시에 몇 달 전부터 내 목에 작은 멍울이 잡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동네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은 멍울을 이리저리 만지시더니 소견서를 써 줄 테니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다. 그렇게 검사를 받고 일주일간 결과를 기다렸다. 다행히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이란 결과가 나왔고, 경과를 지켜본 후 수술을 하기로 했다.

지난달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의 건강 문제로 병원을 다니면서 부쩍 죽음에 관한 생각이 잦아졌다.

그동안 나는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이에 관해 주변 사람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생물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걸 알면서도 막상 나와는 먼 일로 여겼던 것 같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죽음, 내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장례식과 화장을 치를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아가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며 지난 한 달간 내 머릿속은 죽음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난 대형 산불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 뉴스를 볼 때면 피어나는 봄꽃의 존재가 잊힐 만큼 현실이 참혹하게 느껴졌다.

죽음은 모든 생물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생물이 물체와 다른 점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삶 끝의 죽음은 생물의 특권이자 정체성이다. 어쩌면 죽음이 생물이란 존재를 더욱 고귀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론일 뿐, 나는 여전히 죽음이 낯설다.

동물이 아닌 식물에게도 죽음은 있다.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거나 태풍에 뿌리째 뽑히는 개체 하나하나의 죽음도 있고, 한 종의 식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절멸도 있다. 절멸은 지구상에 한 종의 생물이 아주 없어지는 일이다.

절멸은 그 이름만으로도 너무나도 막막한 일이라 우리와는 먼 일 같지만, 1900년 이후 지구에서는 매년 세 종의 식물이 절멸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적인 멸종보다 수백 배 빠른 속도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는 나도풍란과 다시마고사리삼, 그리고 무등풀, 벌레먹이말, 줄석송…. 이 식물들은 더 이상 야생에서 볼 수 없는 절멸 식물이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것은 이것이 되돌릴 수 없고, 후회와 슬픔만 가득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에게 절멸은 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고, 또 누군가에는 못다 한 행동에 대한 후회다. 1938년 광주 무등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무등풀이라 명명된 식물을 나는 앞으로도 산에서 볼일 없고, 그림 그릴 수 없다.

시기가 각자 다를 뿐 모든 생물은 죽는다. 그런 죽음을 앞두고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 병원 검진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간 나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야 했다. 혹여나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때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지금 그리고 있는 식물들, 나를 믿고 일을 맡긴 클라이언트, 그리고 나의 가족이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닌 늘 하던 일을 하고, 가까운 이들과 일상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 온몸의 에너지를 꽃봉오리에 쏟아 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역시 이미 절멸한 식물이나 산불과 전쟁에 사라져가는 풀들과 마찬가지로 한 종의 생물, 하나의 개체일 뿐임을 실감하는 날들이다. 〈식물세밀화가〉

의료칼럼

하얀 이를 갖고 싶어요

박 태 영
조선대치과병원 치과보존과 교수

예뻐지고 싶은 욕구는 태곳적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하얀 이를 가지고 싶은 소망도 누구나 가지고 있다. 대부분 연예인들의 하얀 이가 부러워 치과에서 미백 상담을 받지만 집에서 스스로 미백을 하는 경우가 있다.

치아 미백은 약품(미백제)을 이용해 변색된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치과에서 하는 '전문가 미백'이나 집에서 하는 '자가 미백'이나 기본 원리는 같다. 가장 큰 차이는 미백제에 함유된 과산화수소의 농도이다. 과산화수소는 입안에서 분해되면서 산소를 방출하는데 이 산소가 치아 표면의 법랑질과 상아질 안으로 들어가 착색된 물질을 표백해 치아를 희게 만든다. 농도가 높을수록 빠른 시간 안에 미백 효과가 나타난다.

자가 미백은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치과 전문가 미백은 1~2회면 효과가 있으나, 자가 미백은 3~6개월 정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최근에는 '홈 블리칭'(home bleaching)이라는 자가 미백 치료법도 나와 있다. 치과에서 치아 모양에 맞춰 제작한 틀에 미백제를 바른 뒤 취침 전 2~3시간 동안 입안에 끼고 있는 방법으로, 6주쯤 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치과에서 빠른 미백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 전문가 미백과 홈 블리칭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치아 미백 치료를 받은 뒤 이가 시리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왜 그럴까? 우선 치아가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에 오래 노출되면 치아 속 신경이 손상을 입어 시린 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치아에 패인 부분이 있거나 평소 시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미백 치료 전 꼭 치과 검진을 받고, 시린 증상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처치받아야 한다. 자가 미백을 하는 경우에도 권장 시간보다 더 오래 미백제를 사용, 치아가 민감해져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

최근에는 스스로 치아 미백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들(미백 치약, 미백 패치 등)이 많이 나오고 있다. 치과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마트에서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OTC: Over-The-Counter)으로 분류되는 것들이다. 이 중 미백 치약과 미백 껌 같은 것으로는 변색된 치아를 하얗게 만들기는 어렵다. 이들은 변색이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치아 미백 후 새로운 변색을 막는 데 사용하면 좋다. 특히 미백 껌은 미백 치약에 비해 치아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치아 변색 예방 효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치과 의사가 다루는 고농도의 치아 미백제를 일반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 치아에 해로울 수도 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10~30%이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미백용 스티커나 젤 등에 함유된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2~3% 정도에 불과하다. 상처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농도와 같은 수준이므로 적용 시간만 잘 지킨다면 큰 문제는 없다. 대신 OTC 제품 미백은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이가 시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 제품 사용을 중단하면 24~36시간 안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미백제의 유효 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다. 미백제는 알카리성일때 효과가 더 좋다. 그러나 보관상의 문제로 인해 중성이나 약산성으로 만들어진다. 산성일수록 유효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시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효과가 떨어진다. 초창기에 발매됐던 상점용 제품들이 많이 시렸던 이유는 농도의 문제도 있었지만 유효 기간상의 문제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가 미백을 할 예정이라면 가능한 신선한 미백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미백 치료를 받으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구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어느 정도 변색이 돌아온다. 다만 변색을 유발하는 음식과 흡연을 피하고, 미백 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이용해서 칫솔질을 하면 밝아진 치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보통 미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6개월~1년 간격으로 주기적인 리터치가 필요하다. 리터치를 통해 처음 치료할 때보다 빠른 기간 내에 원하는 정도의 미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 고

'4·19 혁명의 빛'

이 병 열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장

4·19 민주혁명 제62주년을 맞아 지방 유일의 광주 4·19민주혁명 역사관 1층 현관에 게시된 작품 '4·19 혁명의 빛'을 보며 4·19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4·19 혁명의 빛'은 우제길 화백이 4·19 혁명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역사관에 기증한 150호 크기의 그림이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100인에 선정된 우 화백의 작품은 1960년 4·19 당시 암흑 세상을 빛으로 밝히기 위해 수만의 학생들이 "독재 정권 타도, 부정 선거 규탄"을 외치며 광주 도청 앞 광장으로 운집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1960년 4월 19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4·19 민주혁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민주화의 초석을 다진 위대한 민주화의 역사이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더불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4·19 혁명의 직접적 발발 원인은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제5대 부통령 선거를 사전 대리 투표와 3인조·5인조 반공개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 갖은 부정으로 국민 주권과 참정권을 박탈한 데서 비롯된다.

광주에서는 3월 15일 낮 12시 40분경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민주당 선거 참관인이 철수하며 선거 포기 선언을 하고, 당원과 시민·학생들이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곡 민주주의 장송 데모'을 벌이다 진압 경찰과 충돌했다. 이로부터 세 시간 뒤 마산에서 1차 시위가, 6시경에는 마산 학생 데모대와 경찰 간 마찰로 열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김주열 학생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시신으로 발견되자 전국 학생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광주의 4·19 혁명은 자유당 독재 정권과 부정 선거에 항거하기 위해 4월 18일 광주고생 하숙집에 광주고생과 조대부고생들이 모여 봉기를 모의한 데서 시작된다. 이 자리에서 4월 19일 광고생이 먼저 봉기키로 했으나 정보가 경찰에 새 나가는 바람에 당일 아침 등교와 동시에 모의 참가자들과 반장들이 교장실에 불려 가 감금됐다.

하지만 2교시가 시작된 10시 20분경 난타 종소리 직후 3학년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뛰어나가고 이어 1·2학년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였다. 난타 종소리가 광주 4·19의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정원채 학생은 필자의 옆자리에 앉았다가 2교시 시작과 동시에 사전에 열어 놓은 뒷문으로 종을 치러 나갔으나 종 치는 나무 망치가 보이지 않자 자신의 워커를 벗어 종을 난타했다.

운동장에 집결한 학생들은 각 고등학교를 방문해 광고생들의 봉기 사실을 알려 동참을 호소하기로 하고 교문을 향해 달려갔다. 철제 교문은 굳게 닫혀 있고 밖에선 경찰과 선생님들이 막고 있었다. 선봉에 선 학생들이 경찰과 승강이를 할 때 일부 학생은 후문으로 달려갔다. 승강이를 하던 학생들도 교문을 무너뜨리고 도로로 나왔다. 광주 4·19의 서막이 오르며 혁명의 빛이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문을 박차고 나온 학생들은 계림동 오거리 방향으로 달려갔으나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대열이 무너지며 일부는 경찰에 붙들려 갔다. 나머지 학생들은 전남여고·광주여고·공고·조대부고·숭일고·수피아여고로 달려가 봉기 사실을 소리쳐 알리며 동참을 호소했다. 오후 2~3시경 광고·부고·상고·숭일고·광주여고·농고·광주사범·일고·수피아·전남여고 학생 수만 명이 도청 앞 광장과 금남로·충장로에 몰려 들면서 혁명의 불꽃이 타올랐다. 경찰이 소방차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며 해산시키려 하자 피 끓는 학생들은 투석전으로 대항했다.

오후 5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지만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후 8시경 학동파출소에 대한 투석 중 경찰의 실탄 발포로 학생이 쓰러졌다. 광주 4·19 최초 희생자인 강정섭 학생이다. 시위대는 밤 9시경 광주경찰서로 이동해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의 최루탄·공포탄 발포에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다. 9시 20분경에는 경찰 돌격대가 나와 실탄을 발포하며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때마침 떨어지는 빗방울과 함께 시위대는 산산이 분열되었다. 광주 4·19 민주혁명 당시 사망자는 여덟 명(경찰 한 명), 부상자 59명으로 역사에 길이 기억되고 있다.

이후 시위는 계엄령 하에서도 계속되었다. 마침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자유당 독재 정권이 무너지며 제2 공화국이 출범하였다. 4·19 혁명의 빛은 위대한 민주주의를 밝혀 탄생시켰다.

社 說

심사 위원·기준 '깜깜이' 이게 공천 혁신인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위원 명단은 물론 공천 기준조차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그제 공관위를 열고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신청자 647명 중 1차 배제자 16명을 발표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신청자 103명 가운데 네 명이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됐다. 현역 단체장 중에서는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가 여기에 포함됐고, 김정욱(순천)·김선용 후보(나주)도 탈락했다.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는 138명 가운데 11명이 배제됐다.

공관위는 공천 배제 사유로 윤리심판원의 조사 결과와 범죄 경력, 성 비위,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관련이라고만 언급하며 세부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1차 검증을 통과한 현직 단체장 후보자들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에선 현직 시장과 관련된 고소·고발이 네 건에 이르고 나주·강진·함평에서도 현직 시장·군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안도 현직 단체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로비 차단 등을 이유로 다른 시도당과 달리 공관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나아가 전남도당은 장흥·강진군수 경선을 여론조사만으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 공관위의 도덕성 및 자질 검증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다. 한데 지금까지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보여준 행태는 이에 역행하는 흐름이다. 민주당이 내세운 공천 혁신이나 지역민이 기대하는 변화와도 거리가 멀다. 시도당은 공관위 위원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명확한 공천 원칙을 밝혀야 할 것이다.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기 앞당겨야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은 전남 들녘에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된 밭농사는 이달 들어 고구마와 마늘 파종으로 이어지고, 과수농가의 경우 열매솎기가 한창 진행되면서 눈코 뜰 새가 없다. 한데 일손 부족과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력난은 농업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임시로 허용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이 막힌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청년이 떠난 농촌에선 오래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들이 입국하지 못한 탓이 크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전남 14개 시군 농어가 433가구에 123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입국한 사례는 그제 고흥군에 배치된 32명이 전부다.

이렇다 보니 농촌에선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브로커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불법 체류자)를 쓸 수 밖에 없다. 내국인은 아예 구하기도 힘든데다 어렵게 구했다 하더라도 일당이 여성은 13만 원, 남성은 18만 원까지 줘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매년 2월과 7월 배정하지만 현장 배치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더 걸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해외 자치단체 간 양해각서 체결과 모집 및 입국 수속 때문인데, 차제에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배치 규모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파종이나 이작을 위해선 수십 명에서 백여 명까지 필요한데 농가당 최대 12명밖에 배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농번기 때면 수급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3년째 코로나19까지 겹쳐 인력난을 더욱 부추기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려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배정 시기부터 앞당겨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도시 공간의 정의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누구라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여행일 것이다. 거대한 자연을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유럽·미국 등의 선진 도시를 둘러보는 것 역시 재미있다. 도시 자체가 거대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이다. 매력적인 도시는 질서 정연하고, 각 시기별 역사자원이 보존돼 있으며, 공원·광장과 박물관·미술관·역사관 등 공공시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보행을 중심으로 한다.

도시가 부동산 시장이 돼 버린 우리의 현실과 너무도 다르다. 왜 우리의 도시는 이렇게 됐을까. 먼저 일제강점기의 도시 개발은 철저히 돈벌이가 그 목적이었다. 도시 내 하천이나 저수지 매립, 읍성 밖 농지나 임야의 형질 변경, 조선 고유 자원의 파괴와 훼손 등을 통해 공장·주택·시설 등을 조성했다. 그 과정에서 싼 값에 공유지를 매입한 일본 기업과 일본인들은 큰 돈을 벌었다.

해방 이후 도시는 농촌 인구의 이동, 급속한 인구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가 폭발했다. 정부는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법까지 제정하며 외곽 택지를 조성해 나갔다. 저렴한 토지는 공기업을 거쳐 아파트로 개발됐으며, 토지 소유주, 공기업, 건설업체 등은 대규모 수익을 거뒀다. 도심은 중심성이 취약해졌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투자마저 지연되면서 쇠락해 갔다.

2000년대 들어 소득이 높아지고, 좋은 주택에 대한 욕구도 커졌다. 금융권의 거대 자본까지 도시 공간에 눈독을 들였고, 쉽게 자금을 얻게 된 건설업체와 투기 세력은 주택을 한낱 상품처럼 거래하기 시작했다. 가격을 마음껏 올리고,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해 호가를 높였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고층 개발을 부추겼고, 도심 불량 주택 재개발에 불이 붙었다. 학교·교회·공원, 도심 자투리 토지 등에도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도시는 모두가 사는 공간이다. 개발 역시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도시 공간에서 체현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험하는 곳이 아니라는 의미다. 아파트 개발과 거래로 얻어지는 과도한 수익은 환수해 시민 모두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도시 공간의 정의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